‘상봉길경 불봉재해’ 기원합니다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지난 7월 1일 밤 9시경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역주행으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 가운데는 승진 축하 회식 뒤 참변을 당한 분도 있다고 한다. 불의의 사고는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슬픔에 빠뜨린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주로 청장년층이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천재지변이 됐든 재앙이 닥쳤을 때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기력을 느끼며,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가뭄, 화재, 전염병, 지진, 태풍, 해일, 홍수 따위의 재앙이나 재해는 그래도 조금은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가령 태풍 등이 일어나려 하면 파충류들이 이동을 시작한다느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재앙이나 재해는 예민하게 관찰하고 일체 행위를 삼가며 예방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명심보감〉에서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신표(愼是護身之符)”라고 하는 태공(太公)의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몸을 지키는 부적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재앙은 몸을 근신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니다. 모면하기 어려운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은 재수없어 그렇다거나 신의 뜻으로 돌리며 위로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고,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일 것이다.

신중, 佛法과 중생 수호의 화신
예상 못한 재앙 극복하기 위해
우린 신중의 가호 바라며 기도

그렇다면 부지불식간 일어나는 재앙은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또 불교의 대응법은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불법과 불자를 옹호하고 지켜주고자 서원한 신중의 신통력에 의지한다. 신중은 104위 신중(神衆)이니, 39위 신중이니 하는 분들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성자(聖者)·금강(金剛)·보살(菩薩)·명왕(明王)·천왕(天王)·선신(善神)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그분들은 불법 문중에 머물며 신통력으로 불법과 불자를 재난으로부터 가호한다. 불교는 옹호 성현이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가호해준다고 믿는다.

해서 불자들은 신중의 가호를 바라며 신중기도를 한다. 주로 정초나 월초에 주로 많이 하는데, 공양 올리고 명호를 부르며 우리를 가호하여 달라고 기도한다. ‘상봉길경 불봉재해(常逢吉慶 不逢災害)’라고 하여, 언제나 좋은 일 만나고, 재해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오묘한 우주의 질서를 깨닫지 못한 우리로서는 신통한 힘을 가진 이들에게 간절하게 기원함으로써 신중의 가호를 통해 우리의 안락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신중의 본질을 오해하는 이들은 미신이라고 폄하한다. 물론 신중이 무형으로 형태화되어 등장하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 신중은 깨달은 이들이 불법과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으로 등장하는 화신으로 ‘여래화현원만신통대예적금강성자’이시다.

불법을 옹호하고 우리를 가호하며, 지혜의 절정이자 깨침의 화현이신 신중. 근신하며 정성 다해 나날이 무심으로 올리는 신중기도가 절정에 달으면, 우리는 재해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신앙하고 바르게 신행하는 것이 불교의 재해방지법이 아닐까 한다.

나노사회와 나노 인플루언서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나노사회가 가속화하고 있다. 나노사회는 사회 트렌드가 구성원마다 서로 다르고, 조각조각 쪼개진 현상을 일컫는다. 사회의 파편화 현상이 온라인상에서도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다. ‘나노 인플루언서’가 대표적이다. 나노 인플루언서란 팔로워 수가 1000명에서 1만 명 미만인 인플루언서들을 칭하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는 수십만명에서부터 수백만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팔로워를 거느린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에 나노 인플루언서는 소규모의 끈끈한 팬덤층을 형성하며, 좁지만 타겟이 명확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가지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인플루언서라면 최소 팔로어 1만 명은 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버린다. 나노 인플루언서의 부상으로 온라인 세상은 나노 사회의 또다른 진원지가 되어 현실 세계의 파편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노 인플루언서들의 부상은 이들이 10~20대의 Z세대와 알파세대(합쳐서 잘파세대)의 선택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세대보다 SNS 체류시간이 길고, 취향이 세분화된 특징을 보이는 ‘잘파세대’의 욕구는 특화한 아이템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나노 인플루언서들의 공급전략과 잘 맞아 떨어진다. 잘파세대로부터 시

팔로워 1만명 ‘나노 인플루언서’
‘나노사회’로 가는 현상 담아내
공동체 유대 유지 위한 고민을

작한 나노 인플루언서 시장은 다른 세대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삶의 다양한 구석에서 신규 나노 인플루언서들이 새록새록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나노 인플루언서가 10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메가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이 장악한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가 중요하게 자리한다. 먼저 고가의 카메라나 편집 인력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진입 장벽이 파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제작이 어려운 높은 품질의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의 이용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숏폼은 소셜미디어 시장 판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숏폼이 대세인 것은 유튜브 쇼츠의 성장에서 알 수 있다. 유튜브의 국내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이 지난 해 말 40시간을 넘은 것은 쇼츠 이용률의 증가에 기인한다. 인스타그램 역시 총 사용시간에서 지난해 12월 네이버를 제치고 2위로 올랐는데, 숏폼 콘텐츠인 ‘릴스’가 큰 인기를 몰고 온 결과로 분석된다.

나노 인플루언서의 등장이 메가 인플루언서 시장을 침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메가 인플루언서가 브랜드 차원의 장기적 전략에 유용한 반면, 나노 인플루언서는 세분화한 특정 분야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소구하기 때문이다.

나노사회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개인, 즉 나노 단위로 조각난다는 우려를 내포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나노사회를 가속화하시키고 있는 지금, 공동체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인류가 공생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

社 說

제22대 국회 정각회 창립에 부쳐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가 7월 3일 제22대 창립총회를 봉행하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제22대 국회 정각회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26명, 조국혁신당 3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55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다. 구성원 면면들을 살펴보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추미애 의원과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 대표까지 이름을 올려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 천태종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낸 신심 높은 불자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팔정도 가르침을 실천해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여야 상생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초반부터 갈등 형국이다. 일명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극한의 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7월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둘로 쪼개진 국회를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화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쟁(爭)’을 ‘화(和)’하려면 보살의 마음이 필요하다. 보살의 마음은 결국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승불교 정신과 맞닿는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정책을 실행할 법안을 만든다. 그 법안은 우리 일상생활은 크고 작게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은 ‘보살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국회 정각회원들에게 ‘보살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사찰, 계층포교 공간 마련 나서야

서울 봉은사는 6월 30일 경내 보우당에서 첫 어린이 영어법회를 봉행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경력 20년의 전문가들이 선생님이 돼 진행한 법회에서는 영어로 사찰예절을 배우고, 게임도 하며 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봉은사는 매월 1회 영어법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불교 신도 연령 구조는 타종교와 달리 역피라미드 형태다. 노인 신도가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어린이·청소년, 청년 등 계층포교의 붕괴로 인한 결과물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최소 10년 이상은 꾸준히 투자해야 진성 불자 한 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봉은사가 시작한 어린이 영어법회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영어도 배우고, 불교도 알 수 있는 영어법회는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사찰로 올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기실 영어법회가 봉은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다. 영어법회를 운영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현재는 출생률 감소로 사찰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줄었고, 학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학생이 되면 사찰을 잘 찾지 않게 된다.

결국, 사찰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층별 니즈를 파악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법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계층포교를 위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7월 1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7월 1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7월 1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